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 목사 국제로잔운동 총재 선임

“젊은 리더들과 연대해 복음주의 확산에 헌신할 것”



마이클 오 목사

국제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의 새 총재 겸 이사장에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Michael Young Suk Oh·42) 목사가 지명

로잔운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버드셀 총재는 “마이클 목사는 앞으로 열정과 비전을 갖고 이 운동을 이끌 인재이자 젊은 지도자이다. 그의 지도력 아래 로잔운동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 교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 목사의 임명 소식에, 오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교계에 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로잔위원회 사토루 가네모토(Satoru Kanemoto) 위원장은 “우리는 마이클 목사를 위해 일본 교회들의 지지와 기도를 이끌어내는 데 힘써왔다. 일본복음주의협회(JEA) 이사회 멤버로서, 겐이치 시나가와 사무총장이 마이클 목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오 목사의 임명 소식에 매우 고무됐으며, 시나가와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 안에서 일본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오 신임 총재는 “빌리 그래함 목사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이 로



“우리로 설맞이 옷 던져요” = 웨스트LA에 위치한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주최로 9일 다울정 인근에서 열린 ‘설맞이 옷놀이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이 신명나게 옷을 던지고 있다. 이날 참여한 1백여명의 한인들에게는 ‘퍼스트 패트를 경비회사(조갑제 사장)’의 후원으로 쌀 1포대와 과일셋트가 각각 전달됐다. 방주교회는 또 지난 10일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를 통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CGV 아메리카와 손잡고 독거노인 350명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잔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데 깊은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권의 젊은 리더들과 연대를 통해 복음주의운동 확산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오 목사는 일본 나고야에 그리스도성서대학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일본 내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로잔운동의 린제이 브라운

(Lindsay Brown) 국제디렉터는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마이클 오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라운 디렉터는 리더쉽 이행을 지원하면서 2015년까지 국제디렉터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로잔 신학위원인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잔운동 총재직은 국제 기독교

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버드셀 총재는 미국성서공회 이사장 자리로 옮긴다. 오 신임 총재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국제로잔운동을 이끌게 된다.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추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건 왼쪽부터) 홍순현 장로, 백지영·이운영·정중준 목사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시작한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추진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엔 특히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홍

순현 장로) 등 교계 단체가 힘을 모아 기초자금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 3개 단체 대표들은 5일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관 건립을 위해 주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모금을 위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다호칼비 식당에서 일일식당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제와 모금회도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목사회 이운영 회장은 “모금액 및 건물 크기 등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3층 이상 건물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면서 “올해부터는 회관 건립을 위해 모금된 금액을 사무적인 용도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또 지역단체 및 기업가들로부터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 321-4433

이슈

오정현 목사 “건축 논란 빌미로 ‘48시간 내 사임’ 압박받아”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0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심경을 밝혔다. 오 목사는 미리 적은 글을 읽으며 “지난 주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저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은 성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건의 진위와 상관 없이 제 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

국교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문은 18년 전 남아공에서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의 제자훈련 목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며 “작성 과정 중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관계기사 9면>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2013년도 실버드림대학 봄학기 개강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수강 신청 안내

- 1. 학과 수업 내용** * 개설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1, 2 / 컴퓨터 기초 / 컴퓨터 중급 / 건강체조 / 서예 / 비독 / 노래교실 / 기타교실 / 월별 특강
 컴퓨터 과목 신청시 컴퓨터는 개인이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노트북 \$350~\$500 이상)
 기타교실 과목 신청시 기타는 개인이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기타 \$100~\$500 이상)
- 2. 학기 일정 안내**
 1) 기간 : 3월 14일 ~ 6월 27일(16주간) 매주 목요일
 2) 시간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3) 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 3. 대상 :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 90명까지)**
- 4. 학비: 한 학기 \$30.00**
- 5. 등록기간: 2월 10일(주일)~ 2월 17일(주일)**
- 6. 접수 및 문의처 :**
 (솔로몬 지혜원 앞)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담당교역자: 서미수 전도사 / 부장: 지길준 전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에녹회 회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과 더 나아가 한인 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기독교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No”

버지니아 리버티대 무어 부총장, 폭스 뉴스 인터뷰서 주장

미국 내에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젊은 목사이자 종교학과 교수가 “신앙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때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전체의 1/5 가량과 30세 이상 성인들의 1/3 가량이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많은 매체에서 기독교를 죽어가는 종교라고 보았다.

그러나 버지니아 리버티대학교에서 대략 100,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목이자 종교학과 교수인 조니 무어(Johnnie Moore) 부총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관점은, 신앙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어 부총장은 “일부 매체에서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보

도하지만, 이들은 70%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실패했다. 사실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1/5 가량의 사람들 역시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적·교단적인 구분에 상관없이, 헌신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형적인 타입에 소속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주일날 발행되는 기사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치 단체 중 단연 눈에 띄는 ‘제리 폴웰의 도덕적인 다수(Jerry Falwell’s Moral Majority)’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 단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모든 중요한 선거에서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들의 역할을 묶어 왔다”고 했다. 지난 11월 치러진 대선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은 전체 선거율의 1/4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3/4은 롬니 후보를 지지했다.

무어는 또한 야간소 주지사였던 마

이크 허커비(Mike Huckabee)의 예를 들어 “그는 즉각적으로 수백만명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서 “비록 오바마 정부가 종교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떠밀지는 않았다”며 “종교적인 자유로,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전에 없던 연대감이 형성됐다”고 했다.

무어는 또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도움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질의 복음주의자들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30% 가량 늘어났다. 이는 경제 성장보다 빠른 속도다. 중국은 기독교의 인구배이터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교회 역시 대륙 사회의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9년 발표된, 미국 고위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Evangelical Leaders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성장에 대한 압도적인 낙관주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지난 7월 진행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4%만이 종교와 관련된 일을 했거나 종교에 대한 확신이 크다고 대답했다. 이 수치는 2011년의 48%에서 더 줄어든 것이고 최저 수준이었던 2002년의 45%보다도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였다. 가베 라이온스(Gabe Lyons)는 저서 ‘The Next Christians: The Good News About the End of Christian America’에서 미국 내에서 기독교의 현 체제는 죽어가는 반면, 하나님 의도하신대로 전 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온스는 미국의 기독교가 오

동안 성경의 일부분-타락(죄)과 구원-만을 이야기해왔으며 원대한 서술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혼 구원은 명백하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무너진 것들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믿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다음 세대는 복음과 연결된 회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걸친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17세기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였던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의 “교회는 많은 만치들을 닮아 없어지게 했던 모루”라는 말을 인용해 글을 맺었다.

강해진 기자

존엄사 논란 겪었던 이성은 자매 소천

이만호 목사 “짧은 인생이었지만 선한 일 많이 행한 아이”



이만호 목사, 이성은 자매(가운데), 이진아 사모.

지난해 존엄사 논란 끝에 11월 21일 퇴원했던 이성은 자매가 10일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뉴욕 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의 딸이다.

이성은 자매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10일 오후께 호흡이 크게 나빠져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사모는 존엄사 논란으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성은 자매를 자택에서 보살피며 지극정성으로 병 간호를 해왔었다.

이성은 자매는 가족들과 지역 교회의 도움으로 존엄사 논란에서 벗어난 지 3달 가량, 퇴원 이후에는 2달 가량을 지내며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장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4일(목) 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또한 뉴욕 교계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뉴욕교협장으로 치루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딸이) 몇 개월을 더 살면서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며 “성은이가 가족들 모르게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고 많은 이들을 섬겼다는 것을 간병 중에 알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슬픈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이만호 목사는 “성은이가 에디 오피아 선교,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중국 선교에 힘쓰고 자신의 구좌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많이 지원한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뿌듯했다”며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목회자인 저보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베네딕토 16세 사임... 598년 만에 처음

건강 문제가 주 원인, 오는 28일 공식 사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한다. 일반적으로 교황이 종신직임을 감안할 때 사임은 매우 이례적이며 1415년 그레고리 12세 이후 598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2005년 78세에 교황에 취임했다.

바티칸 신앙교리성 장관을 24년간 맡아 온 그는 보수적 신학관을 갖고 동성애, 여성 사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역대 교황 가운데 최고령 취임자라는 타이틀을 따라 다닌 것은 건강 문제. 이에 따라 베네딕토 16세도 “건강 상태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11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내 사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고 있다.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며 내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란다”고도 했다. 베네딕토 16세가 28일 사임하면 바티칸은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인 콘클라베를 열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톨릭이 크게 부흥하고 있는 남미에서 교황이 선출될 수도 있단 추측을 조심스레 내어놓고 있다.

한편, 교황의 사임 소식에 가톨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보통 종신직으로 알려진 교황이 사망 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가톨릭 교회법 상 교황은 사임이 가능하다. 대신 자발적으로 이

뤄져야 하며 교황이 사임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은 가톨릭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된다. 그는 2010년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사임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전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사도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었다.

그의 전임자인 바오로 2세의 경우에도 건강이 악화되자 퇴위 문제가 거론됐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난 여기 있겠다”고 말했다. 결국 선종한 후야 후임자가 선출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차기 교황들은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할 시 얼마든지 사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암묵적으로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전례가 남게 된다. 범으로 보장돼 있긴 하지만 물러날 수 없고 물러나서도 안되는 거룩한 직임이라 여겨졌던 교황직에 대한 교회 내의 시각도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자칫하면 교황직에 대한 가톨릭 교회 내의 절대 권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튼, 교황이 사임을 선언한 이상, 교황청은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회의인 콘클라베를 3월 중으로 열 예정이며 부활절 이전에 새 교황을 선출하고 즉위식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특성을 우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ww.sarang.com

기독교일보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Worship 예배
심자가 복음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Disciple 훈련
제자훈련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교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민가정과 차세대 자녀들의 부흥과 회복이 있는 교회

Mission 선교
관계전도와 전략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주일에배 [본당 및 킹덤드림센터 (KDC)]
■ 1부 오전 7시 30분 ■ 2부 오전 9시 10분
■ 3부 오전 11시 10분 (KDC) ■ 4부 오후 1시 1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본당)
3부 (오전 11시 10분)
3부 시간에 드러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대학부
■ 청년부 : 오후 3시(본당) ■ 영어청년부(NEXT)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채물)
■ 한어대학부 : 오후 3시(KDC) ■ 영어대학부 : 오전 11시 (은혜채물)

교회학교 주일 2,3,4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예배 :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KDC)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10분, 오후 1시 10분 (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교회와 사회, 소통과 상생의 관계



이상명 총장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교회사(史)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주제였습니다. 이를 다루기 전에 마틴 부버와 함께 20세기

유대 하시디즘(Hasidism) 최고의 사상가이자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 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을 이끈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얽혀 들어가는 것,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주의 드라마의 한 배역을 맡는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책임있게 이해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된다."

전체와의 관련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일에만 미친듯 몰두하는 현대인들은 참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거룩한 소임을 맡겨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또한 자신을 우연히 세상에 던진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무신론자들과 다를

없습니다. 현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 입장은 그 둘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양자택일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자세로는 점점 다원화되어가는 사회를 복음으로 소통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두번째 입장은 교회를 세상의 일부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문화의 일부요 그것에 예속되어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우주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한 성서의 가르침과 상충되며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내재한 악의 실체와 파위에 대한 순진한 이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중세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교권이 정치제도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고 보아 교회가 사회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의 정신, 즉 캐노시스 사상에도 위배되며 교권주의가 지닌 위협성은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그 둘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권위의 체계인 교회와 사회의 역설적 관계에서 역사 너머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현재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자칫 크리스천의 책임 영역을 교회 안으로만 가두고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장은 타락한 인간 본성이 반영된 사회와 문화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든지(첫번째 입장) 그저 초역사적 구원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네번째 입장)이 아닌, 교회가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내린 악의 요소를 복음의 정신으로 기경(起耕)하는 자세입니다. 미래적 구원은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적 갱신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번째 입장을 지지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담은 휘튼 선언, 로잔 언약, 그리고 그랜드래피즈 보고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결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가속적 사회 변동으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교회 안팎의 도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는 건물과 그 담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그것의 실천에 있습니다.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상생하되 복음의 정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헛된 세속적 가치를 혁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혁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나는 개인마다 교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하강(下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의 정신과 섬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이윤과 쾌락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초월적 가치의 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월적 영역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쉽게 동화되어 덩달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나눔, 돌봄, 섬김, 생명, 평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복음의 정신에 담아 실천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

니다. 초월적 영역에서 묵시적 비전으로 잘못된 문화와 불의와 반복음적 풍조를 사회로부터 추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신학자 앨런 보삭(Allan Boesak)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불의가 자행되는 거리를 거닐면서,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면서 응답 표현해야 할 '거룩한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된 사회 질서를 하나님의 의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은 동료의식을 느껴 교회를 무척 반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2천여 전에 세속화된 교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교회가 세속적이고 악한 가치를 변형시키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그 속에 함몰하고 말 것입니다.

글=이상명 총장

겨레사랑 창립...북한 아동 영양 공급이 최우선

실무진에 해외동포 참여, 지속적인 긴급구호 가능케

사단법인 겨레사랑(이사장 신경하 감독)은 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감사예배를 열고 통일의 주역이 될 북한 꿈나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경하 이사장은 이날 "북한 아동들의 발육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남쪽의 아동들은 물론 북쪽의 아동들도 다가를 통일시대 꿈나무들이다"면서 "이 아이들을 품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위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역이다. 겨레사랑은 이 일을 위해 손과 발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5세 미만의 북한 아동 43%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 이는 지금 자라나는 남

한과 북한의 통일 꿈나무들의 신장이 매우 심각하게 차이난다는 의미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양지원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겨레사랑은 해외동포들을 실무진으로 두고,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타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통해 아동 기아치료제, 영양제, 결핵약과 같은 긴급 구호품을 제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북지원 단체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레사랑 창립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이같은 취지로 겨레사랑은 이날 창립식에서 이종용 목사(LA코너스톤교회)를 미주겨레사랑 이사장, 임덕순 장로(감사한인교회)를 미주겨레사랑

상임회장으로 위촉해 대북NGO로서 미주 지역 확장을 예고했다.

또 협력기관으로는 국제구호단체인 굿피플인터네셔널과 미국의 북한 선교단체인 크로스선교회가 참여하고, 사역을 널리 알리며 중지를 모으기 위해 신은경 전 KBS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이사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이날 예배에서 '십자가의 의미'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야 한다"면서 "겨레사랑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귀히 쓰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겨레사랑 창립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창명 장로(굿피플인터네셔널), 장차남 목사(예장합동 중경총회), 김요셉 목사(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중훈 감독(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영길 총장(한동대학교), 윤진식 의원(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날 창립식에 참여해 대북사역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사단법인 겨레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이해 증진 및 북한 주민들, 특히 아동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질병 치료를 위해 2012년 6월 설립됐다. 중국에서 구입한 원료를 가지고 들어가 빵과 영양제를 직접 생산하여 육아원, 애육원 아동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877-580-2424, 310-538-3333.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Kut Morning Insurance.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신앙적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싶은가? 이곳에 와 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가르침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한 캐나다 밴프에 위치한 YM 켈거리 오아시스 베이스 DTS 대표 김필립 목사(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청년들이 기념포즈를 취하면서 신나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캐나다 록키산맥의 심장부 '밴프(Banff)'에 위치한 국제 예수전도단(YM) 켈거리 오아시스 베이스에서 '2013년도 예수제자훈련학교(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DTS란 3개월의 강의와 2개월간의 '아웃리치'를 통한 집중적인 제자훈련 과정으로, 학생 개개인이 삶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들, 즉 성경의 진리들을 배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케 하고,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강의 내용은 크게 'Toward God', 'Toward Us', 'Toward others'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목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십자가 ▷권리 포기 ▷겸손 ▷성령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적 전쟁 ▷다림줄 ▷재정 ▷성격과 기질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공동체 ▷관계 ▷전도 ▷선교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배운 것을 국·내외를 비롯 제3세계 등에 가서 적용하는 것이 '아웃리치'인데, 이를 통해 현지 선교사와 동역함은 물론 국제사역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오아시스 베이스 대표 김필립 목사(60)는 DTS에 대해 "훈련의 포커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Transformation)'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아시스 베이스는 한인이 개척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본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아내 김은혜(영어명

국제YM 캐나다 오아시스 베이스

DTS 봄학기 학생모집

릿)씨와 함께 15년째 YM 스템으로 헌신해 오고 있다.

지난 가을학기 DTS에 참석했던 한 직장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차지도 담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며 "하지만 DTS를 통해 말씀 묵상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법, 교회 지체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법 등에 대해 배웠다. 이는 인터넷에서 찾아듣는 설교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삶의 변화를 꾀집어내는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DTS를 마치고 현재 오아시스 베이스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다음은 DTS에 대해 김 목사가 덧붙인 내용.

"저희 켈거리 오아시스 베이스는 훈련, 전도, 구제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어릴 가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안 하잖아요. 저도 살면서 나름 신학도 해보고 목회도 해봤지만, '거짓된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나 교

리, 전통, 관습에 가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도 교단마다 다르고, 자기네들과 다르면 쉽게 이단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박스에 넣지 말자는 거예요. 또 갑2장 20절 말씀처럼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온전히 죽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왕만두를 6개나 먹어서 아직도 배가 든든합니다. 이런 '증상(symptom)'이 신앙에서도 재현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 다 내려놓고 저희 DTS에 와요. 한국서 휴학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 중국 연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가게 내려놓고 오시기도 합니다. 바라는 이곳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 영적 전사로, 그저 그런 '누군가(somebody)'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바로 그 제자'들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의: 1-403-969-9191

“의료와 선교를 동시에” 최첨단 의료장비 구축한 다나병원 오픈



새로 오픈한 다나병원 신상희 원장이 개원 취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태바미션선교후원회(담당 정영삼 목사)가 후원하는 다나병원이 지난 1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 건물 내에 새롭게 개원했다.

이 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종합검사도 확인할 수 없었던 모든 신체 기능 이상을 방사선 위험이나 통증 없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검사의 병원이다.

이 병원 신상희 원장은 7일 오후 3D

전신 종합검진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검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FDA에 등록된 '3D ELS Body Scan'이라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면 3분 만에 70여 가지의 생체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적의 예방 및 사후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념의 이 건강검진은 신체

의 스캔을 통해 나타난 신체 부위의 이상유무를 정확히 판단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후 치료방법도 찾아준다. 이점을 지니고 있다.

다나병원에서는 ▷호흡기 기관 ▷소화기관 ▷심혈관계 ▷뇌신경계 ▷신경계 ▷근육계 ▷신장 및 방광 기능 ▷갑상선 ▷신진대사기능 ▷심장 활동 기능에 대해 3D 영상과 그래프 등을 통해 분석한다. 건강검진 서비스는 매달 30달러의 회원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미개발 국가 및 의료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 지원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태바미션선교후원회 정영삼 목사는 "다나병원이 한인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어려운 나라를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타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밝혔다.

신상희 원장은 동국대학교 LA 학장, 박사과정 원장, 연구지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소: 621 S Virgil ave, #310, LA
▷문의: (213)487-0691, (714)553-3808

섬마을교회 드림몸찬양선교단 방미

한국 서해안 변산반도 앞바다인 위도와 연해있는 식도교회 담임 박영빈 목사와 섬 아나으로 구성된 (드림몸 찬양선교단)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이민교회와 구제지역 현장을 돌아본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다.

찬양단은 이 기간 중 국악풍의 찬양곡에 맞춰 부채춤을 곁들인 위십 찬양곡으로 고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아울러 이들은 고국 오지의 섬마을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구수한 강중도 나눌 예정이다.

방미 기간 중 공연은 20여회 갖는다. 특히 16일에는 다운타운의 라미

션 센터를 방문해 200여명의 홀리스들과 스태프를 위해 위문 공연을 갖고, 17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LA 성시화운동본부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축하무대에 선다. 이밖에 양로보건센터 공연을 비롯 여러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펼친다. 찬양단은 평균 연령 64세의 섬 아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최연장자가 76세다. 단원들을 인솔하는 박영빈 목사는 3년 전까지 거리선교회에서 사역해 오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LA에서 사역했던 구제지역 현장(소중한 사람들, 살롱장애인선교회, 아가페홈미션 등)을 돌아보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LA 연합교회 설립예배

United Community Church of LA

저희는 이 시대, 이 지역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함을 절감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아래와 같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신앙의 동지들과 새롭게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설립예배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초청인: LA 연합교회 설립위원회, 김동술 목사 정홍권 목사

설립예배일시: 2013년 2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교회목적: (1) 하나님께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세계복음화를 목표로하는 선교 (3)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 **예배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1부예배), 2시 45분 (2부예배)**
- **예배장소: 685 S. Carondelet Ave., L.A., CA 90057 (맥아더 공원 부근)**
- **연락전화: 310-661-1166 (김동술 목사) 213-905-0445 (정홍권 목사)**



공동목회자

정홍권 목사 - 부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고려신학교 수석, Eastern Baptist 신학교 졸업, Westminster신학교 졸업 (한인으로 최초로 학위 받음), 교신대 교수, 동아일랜즈 제일장로교회 목사 (23년 시무), 뉴욕 총회신학교 교장, 동부개혁신학교 교수, Life Univ., Emmanuel Univ., 강의, 국제개혁신학교 신대원 교수

김동술 목사 - 영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음악학과 졸업(성악전공), Conservatorio Statale Di Musica Rovigo(이태리 국립음악 졸업, 성악전공), 국제개혁대학교신대원 졸업,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박사 과정 (Candidate), 신일 전문대학교수, 영남대학교 교수, 열린문교회 음악목사, 제93회 '남북 가곡의 밤' 독창 및 수많은 연주회 독창 및 음악회 독창.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요 7:37-5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영어로는 Christian(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 받았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받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복락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생활을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인의 결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데 음부라는 말은 계해나, 하데스, 영어로는 jail(제일), 유치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두어 놓는 곳에 갑니다. 왜 갇혀 있어야 하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 세상에 구름과 흑암이 갑갑하게 임합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빛을 잃고 반딧불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새벽별같이 유일한 빛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온 하늘나라에 가있던 영들이 각각 천사들에 이끌려서 자기 육체가 되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조건에 대한 기대가 탐욕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면서 빠기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행세하고 싶고, 또 남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아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가식적이고 허황된 인생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 퍼마시고, 도박도 하고 이성간에 음란, 간음하기도 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가치는 육체뿐이란 알았습니다. 이 육적인 욕구는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영적인 존재를 알게되고 영적 가치에 기대를 갖게 되면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육체의 자기 가치에 전폭적인 기대를 모아 사느라고 외제라면 다 좋은 것인가 싶어 보아 지면서까지 사들이며 치장하느라 빛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어리석게도 껌데기뿐인 육체를 너무나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껌데기보다는 알맹이의 가치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잘돼야 내가 모든 일이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

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 들이셨을까요? 이는 내게 육체가 전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니까 그 영이 하늘나라로 되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보면 명절 끝 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은으로 된 향아리가 있습니다. 은은 번지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은 향아리에 붓게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훗날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은향아리에 들어있는 실로암 못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나이 벌판을 지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이라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손에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출 17:4)했을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렘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 17:6-7)하신 말씀대로 호렘 산으로 올라가서 큰 반석 주위에 장로들을 둘러 세우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세상이던 애굽에서 공중 권세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애굽왕 바로)의 명에와 채찍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젓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믿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백성은 모세에게 맡겨진 양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대로 모세는 그 양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옮겨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은 인도하게 했던 것은 그동안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를 불-

들어 택한 백성들을 주변에서 불러들여 그 목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자들은 그 양떼를 책임지고 길러내어 하늘나라 보내기 위하여 책임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대로 한 것임을 깨달아 모세를 따르는 이들 중에 인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목자로 알아 따르는 이들은 그 겉을 신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전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내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지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은향아리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 30년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그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교대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세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혹은 이 사람이 참 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성경에 다윗의 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줄도 모르고 갈릴리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무리중에 쟁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종들이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에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 예수님 잡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에 잡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어찌하여 잡으려 못하였냐고 묻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에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점점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보던지 불신양적인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지옥가기를 재촉하는 불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를 불만 불평하던 사람들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의 입장에 함께하기를 힘썼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장을 예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에서 서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에 선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와 함께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집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흥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말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람바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엽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 - 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월 19일 2013년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정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교계 브리핑

나성순복음 주관 실버드림대학 2013 봄학기 개강

나성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실버드림대학이 오는 3월 14일 봄학기 개강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90명 모집한다.

봄학기는 6월 27일까지 16주간 이어진다. 개설과목은 >생활영어1·2> 컴퓨터 기초 >컴퓨터 중급 >건강체조 >서예 >바둑 >노래교실 >기타 교실 등이며, 월별 특강도 마련된다.

클래스는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학비는 30불. 접수 마감은 2월 17일까지다.

>문의: (323) 913-4499

밀알선교단 자원봉사 세미나 열어

남가주 밀알선교단(이영선 단장)은 지난 9일 자원봉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

에서다.

밀알선교단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토요 프로그램인 '밀알사랑의교실'은 지난 2000년 남가주를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미주 내 26개 지역에서 참가자 471명, 봉사자 600명, 스텝 135명 등 전체 1206명이 참여하는 미주 한인공동체 최대의 발달장애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사랑의교실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발간된 운영지침서(Administration Manual)를 중심으로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강사에는 CSULA 특수교육학 김효선 교수가 나섰다.

아울러 발달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여름 캠프인 '2013 사랑의캠프'를 준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선교단은 "이번 세미나가 밀알선교단의 봉사자들을 위한 자체행사로 기획됐지만, 장애사업단체와 각 교회의 장애부서가 함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공유 차원에서 타 기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의: (714) 522-4599

FBM '사랑 만들기' 새내기부부 위한 교실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BM, 대표 금병달 목사)이 새내기 부부들을 위한 교실을 오픈한다. 커플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화의 기술, 육아를 위한 애착의 기술 등을 주제로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강사로는 금병달·금정진 목사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한다. 장소는 커넬대학(3321 W Lincoln Ave, Anaheim)에서다. 참석하는 커플들을 위해 개별 멘토들이 준비된다.

강의 내용은 임신, 태고, 모유수유, 애착의 기술, 커플관계 증진의 기술 등이며 참가비는 30불. 참가자들에게는 저녁식사 및 교재가 제공된다.

>문의: (714) 287-2458

제3차 뉴스피릿 무브먼트 포럼 열린다



박용덕 목사

오는 2월 21일 제3차 뉴스피릿 무브먼트(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포럼이 개최된다. 라하브라에 위치한 남가주빛내

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에서다.

'이 땅을 거룩하게 디자인하라'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OC목사회, 미주극동방송 공동 후원으로 열린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과 관련해 "이 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의

역할과 이민목회의 비전 나눔과 정체성, 그리고 이민교회의 참된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돌파구를 함께 토론하며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정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회비는 무료. 참가자들에게는 점심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전화 (714-401-9874)로 하면 된다.

최바울 선교사 LA 방문해 기자회견 열어



최바울 목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 서부지역서 첫 해명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LA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설명했다.

5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선교사는 자신의 이단시비와 관련, 스산

학적 부분 스산교방범론 스교회관계 스베뢰아 요소 부분 스백투에루살렘 용어사용 등과 관련해 설명했다.

최 선교사는 "신학적인 부분은 내가 쓴 저서 '영적도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20페이지를 삭제했고, 베뢰아는 80년대 성락교회에 1년 7개월 동안 다녔다가 귀신론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나왔고, 현재 백투에루살렘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이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며 "KWMA로부터 지도를 받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가고 있다. 특정 교단에서 특정 신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인터콥)는 복음주의 시각에서 복음적인 것들을 겸손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콥은 올해 애너하임 지역의 터라치에서 선교캠프를 연다는 계획이다.

남가주성광회, 총회 열고 지난해 임원 재선출

후진양성과 교회발전 위해 중보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할 터



은퇴목회자들의 모임인 남가주성광회가 총회를 열고 지난해 임원을 재선출했다.

은퇴목회자들이 매월 1회씩 모이는 남가주성광회가 7일(목) 오전 11시에 나성성결교회(담임목사 정호윤)에서 40여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임원 그대로 재선출했다. 성광회는 이곳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관렬 목사)에 소속돼 활동하는 은퇴목회자들의 모임으로, 매월 순회예배와 이곳 남가주의 성결교회 3개 지방회가 후원해 LA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은퇴목사위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후진들과 성결교회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인 중보사역을 펼치고 있다. >문의:(714) 766-9274

평화교회 설립 감사예배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 시작"



김은목 목사

평화교회(김은목 목사)가 2013 교회설립 감사 부흥성회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6일(수)부터 19일(일)까지 요나서 강해를 펼친 가운데 열렸다. 더불어 10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설립 감사예배가 열리고, 기도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요나서 강해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로 진행됐으며, 담임 김은목 목사가 회복의 관점으로 정리했다.

9일(토) 강해는 '바다가 점점 흉흉한 지라'(요나서1:11-16) 본문으로 열렸

다. 김은목 목사는 "1장에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그 앞 뒤 문맥으로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풍량이 잠잠해지는 것"이라며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약속하고 주신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한다.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위에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르짖는 신은 여호와이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것이 부흥이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여기서 부흥은 요

나의 회개로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때 부흥이 임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풍량이 더 세지는 것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며 "이를 두려워 말고 믿음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설립 감사예배에서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김은목 목사, 기도 강기운 목사(미주대신 미주노회 부노회장), 말씀 변영익 목사(벤엘장로교회), 권민 강우중 목사(미주노회 노회장), 축사 강부웅 목사(미주대한신학대학 총장), 축도 류당열 목사(남가주노회 노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진리의 말씀 따라가고자” LA연합교회 설립된다

2인 목회자 공동목회 “말씀에 입각한 교회 세우길 원해”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실천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많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뜻을 모은 두 목회자, 정홍권 목사와 김동술 목사가 LA한인타운 내에 LA연합교회를 설립한다.

이들이 공동 담임으로 개척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선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목적으로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설립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담당하게 될 정홍권 목사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 중에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 성경에 입각한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을 결심했다”며 “가르치

는 사역을 통해 이 시대 참된 교회상을 제시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교회에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학 수준의 성경공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부는 토요일 오전 7시,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인도를 담당하게 될 김동술 목사는 “요즘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화된 찬양 문화를 지양하고, 거룩한 찬양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예배의 형식을 깨고 새로운 예배로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말씀의 내용이 잔잔하게 마음에 스며들어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왼쪽부터)정홍권 목사와 김동술 목사. 이들은 이 시대 참된 교회상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에덴교회 건물을 사용하

게 되며, 예배는 오후 1시 30분(1부), 2시 45분(2부)에 진행된다.

정홍권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한인 최초로 학위를 받았으며, 롱아일랜드제일장로교회 담임, 뉴욕총회신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개혁대학교 신대원 교수로 있다. 김동술 목사는 영남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국제개혁대학교신대원 졸업, 열린문교회 음악목사를 역임하고 제 93회 ‘남북 가곡의 밤’ 독창의 수많은 연주회에서 독창을 한 경력이 있다.

>교회주소:685 S. Carondelet Ave., LA., CA 90057

>문의:(310)661-1166(정홍권 목사), (213)905-0445(김동술 목사)
토마스 맹 기자

“악을 설명해준다면, 크리스천 되겠다” 던 무신론자...

퍼듀대 ‘신의 존재’ 토론회에서 기독교 변증가에게 판정패

최근 퍼듀대학에서 열린 ‘신의 존재’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무신론 철학자 알렉스 로젠버그(Alex Rosenberg) 박사는 기독교 변증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William Lane Craig) 박사에게, “당신이 신(神)이 악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말했다.

로젠버그는 “악과 고통에 관한 설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인간이 겪는 참혹한 고통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조화되는, 논리정연한 설명을 크레이그 박사가 제시할 수 있다면 나는 크리스

천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왜 자비롭고 전지전능한 신이 홀로코스트, 제1차 세계대전, 흑사병 같은 비극을 허락했는지” 물으며, “아무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크레이그는 “로젠버그의 마지막 말에 정말 흥분된다. 이 질문이 지닌 문제점은 우리가 신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그것은 거짓이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적 행

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악이 많이 발생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악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만 가장 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영생을 찾을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대한 많은 지식이 존재하나 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가능한 세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역측이다. 그것을 증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합리적인가?”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는 퍼듀대학교의 심포지아크리스티(Symposia Christi)와 비올라대학,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Reasonable Faith)”라 불리는 크레이그의 변증학회그룹이 주최하고 후원했다.

토론회는 라디오 방송 이스트코스트(East Coast)와 웨스트코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송됐고, 몇 시간 동안 “#GODdebate”라는 트위터의 탐 트랜드에 들기도 했다.

토론회의 정식 패널들은 4대 2로 크레이그가 우세했다고 평가했고, 청중들 중에서는 1,390명이 크레이그에게, 303명이 로젠버그에게 투표했다. 크레이그는 온라인 상에서도 734표(로젠버그 59표)를 얻었다.

저명한 작가이자 변증가인 리스트로벨(Lee Strobel)은 이 토론회 이후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이그는 분명한 승리자”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공정한 평가에서도, 빌 크레이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존중과 온화함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결과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알렉스 로젠버그는 크레이그의 8가지 확증적인 주장에 피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렵게 답했을 뿐이며, 크레이그는 로젠버그가 제기한 고통과 고난에 관한 논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토론회를 통해 크리스천이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진리는 우리 편에 있다. 신이 존재하며, 기독교가 참이라는 증거를 책임감 있고 강력하게 제시하는 빌 크레이그 같은 학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했다.

무신론자였으나 예수의 삶에 관한 책 ‘예수는 역사다(The Case for Christ)’을 쓰기 위해 조사하던 중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스트로벨은 “궁극적으로 로젠버그 박사가 무신론의 파산을 깨닫고 그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지게 되길 기도한다. 이런 토론회는 나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변증가 마크 미텔베르크는 이 토론에 대해 “내가 놀란 것은 크레이그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꽤 오랫동안 꽤 여러 무신론자들과의 논쟁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20년 전 시카고에서 내가 주최하는 영광을 누렸던, 그의 첫 미국 토론회에서, 그가 회의주의로부터 받은 도전은 이처럼 강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을 통해 그 첫번째 토론 이후 했던 생각, ‘진리는 논쟁에 있어 커다란 이점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밤 크레이그 박사가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변증했으며, 그의 반대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표현했듯 ‘진리를 막으려(suppress the truth)’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텔베르크는 패널과 시청자의 다수가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기뻐하며 “투표한 많은 이들이 단순히 이 토론에서 누가 승리했는가를 인정하는가를 넘어 이 논쟁에서 다룬 그 한 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은 <http://live.biola.edu/>을 통해 볼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동성 결혼 허용한 교회들과는 ‘교류금지’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단, ELCA 등과 절연 선언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단은 교회 내 동성애 관련 입장으로 인해, 최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단(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ELCA)과 자매 교회인 스웨덴 교회와의 교류를 금지했다.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메카네 예수(the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Mekane Yesus)로 알려진 이 교단은 또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어떤 교회들과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관점에서 ELCA 목사들의 영성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ELCA에 속한 교회들에게 영성체를 나눠주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예정이다.

교류 금지와 관련된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ELCA와 관계된 지도자들은 메카네 예수 교회 설교자로 초대되지 않을 예정이며,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교회는 이들과 동역하지 않을 전망이다.

루터리안(The Lutheran) 매거진

에 따르면, 메카네 예수 교회 지도자들은 에티오피아 본 교회 허가 없이는 ELCA 교단 방문이나 노회 참석을 않기로 결의했다. ELCA 노회에 속한 노스웨스트 워싱턴, 사우스웨스트 캘리포니아, 퍼시픽아, 라크로스 에어리어, 사우스이스턴 등과의 교류 역시 금지됐다.

ELCA 세계 선교 담당 라파엘 말피카 파딜라(Rafael Malpica Padilla)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ELCA는 이번 결정이 통탄스럽다. ELCA와 그 전신 교회 기구들은 에티오피아인들과 50년 이상 동행해 왔다. 또한 우리의 자매 교회인 스웨덴 교회와는 150년 이상 함께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으며, 복음 안에서 교류와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돼 왔다”고 전했다.

ELCA와의 교류 금지 결정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총회가 끝난 이후 비준됐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WCC 공동선언의 뜨거운 감자 '개종전도 금지'가 뭐길래

이번 'WCC 공동선언문'(이하 선언문)의 소위 '4대 원칙' 중 에큐메니칼 진영의 가장 큰 반발을 산 것이 바로 '개종전도 금지'였다. WCC는 지난 1948년 창립 초기부터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했고, 그 연장선에서 개종전도에 회의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부산에서 열릴 WCC 제10차 총회에서도 개종전도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교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개종전도는 타종교에 유화적인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그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다. 다른 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우월성 내지 절대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에, WCC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진영은 개종전도를 극도로 멀리해왔다. 특히 이 개종전도를 기독교 내 서로 다른 교파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그간 에큐메니칼 신학이 추구해 온 연합과 일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진보 신학계의 반응이다.

갑신대 이경배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유불선 종교들의 존재가 더불어 인정되지 못할 경우 기독교가 내건 생명, 정의 그리고 평화의 가치는 그들만의 잔치로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이 점에서 '다양성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 자체가 유일신 사상(一者)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에 토대를 둘 수 있고 두어야 하되, 그 빛에서 종교들 간 차이를 긍정하고 그들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에 주목하는 탈식민지적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이경배 교수의 말에서 보듯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개종전도는 다양성과 공존할 수 없고, 오히려 어느 진보 신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오스 WCC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구현돼야 한다. 개종전도라는

온전하지 못한 방법을 통한 전도와 개종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개종전도에 대해 보수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아세아신학연합대학교 이동주 교수는 과거 한 신학 세미나에서 WCC가 '개종전도 금지'를 선언한 것을 '영혼구원을 가로막는 독설'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개종전도에 대해 "개신교 선교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지역의 명목상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금지하고 그들의 성상숭배, 성자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마리아 숭배 등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WCC는 개종주의 내지 개종강요는 전통적인 기독교 증거를 왜곡시키며, 따라서 복음을 위태롭게 만드는 '역증거'라고 한다. 개종강요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파괴하며 언제나 건전한 교회를 방해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며, 복음 증거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WCC는 복음적인 개종전도를 크게 옹호하고 있다"며 "오늘날 선교사들이 엄청난 희생적 사랑을 쏟으면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적인 개종전도를 '개종강요'로 판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복음적 개종전도를 개종강요가 아닌 '회심전도'라고 해야 한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회심전도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유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2천년 간 이 개종전도를 수행해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복음 전파로 인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되는 것이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외에도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혁승 교수(서울신대)는 "개종전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개종전도를 금지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에큐메니칼서는 "종교들 간 차이 긍정" 보수 진영서는 "구원 가로막는 것"

"오정현 목사, 인용구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다"

학위 수여한 남아공 노스웨스트대의 공식 입장

사랑의교회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오 목사에게 해당 학위를 준 남아공 '노스웨스트대학'(구 '포체프스트룸 신학대학', 이하 NWU)의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NWU는 "Dr. Oh(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NWU의 학생이 아니고, 그러므로 NWU는 이 문제(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Dr. Oh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의 사적인 일이지 만, 이 문제가 Dr. Oh의 사역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일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검증을 위해 실천신학 및 신약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학교측은 "법적 자문과 특별위원회의 리포트를 검토한 결과 Dr. Oh는 연구에 사용된 인용구를 의도적으로 빠트린 것이 아니"라며 "윌킨슨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작년 초 백석대 김모 교수가 당시 (오정현 목사의) 대필 의혹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바,

교회는 당회 직속으로 6월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현재 회자되고 있는 조사위원회는 당시 6월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측은 "당시 조사위원회는 동년 7월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당회는 보고서 제출시점에서 조사위원회 임기가 끝났다고 인식했다"며 "그러나 8월 말 김모 교수는 다시금 이번에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권모 장모에게 하게 된다"고 그간의 경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권 장모께서는 이 같은 제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펼치고 금번 메일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일에서 당회는 조사위원회가 만료되었다는 대다수 당회원들의 의견과 권 장모가 조사위원장으로서는 직무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그리고 메일을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한 비합리적 절차 등을 종합해 이는 보고서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서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오 목사, 주일예배서 논문 문제에 대해 심경 밝히던 중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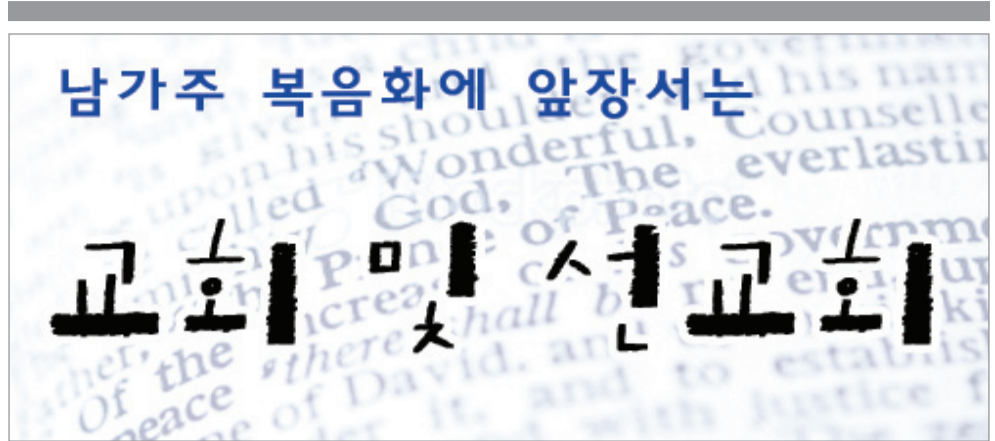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저는 하나님 은혜 밖에 의지할 게 없는 미물 같은 존재"라며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최선을 다해 사역해도 모자람이 있다. 그 동안 저로 인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 목사는 "제가 직접 찾아와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건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면 논문 문제는 났겠다'고 하면서 '48시간 내에 사임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며 "매우 놀랐고 사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당회가 대책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사랑의교회는 여러 난관과 의혹을 극복하며 오는 9월 새 예배당 완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앞으로 가능한 한 대외 사역을 내려놓고 말씀사역과 목양, 그리고 건축 마무리에 전념하겠다. 다시 한 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2:45 금요일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6:3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망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대학부 오후 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6:30(토)	김성민 담임목사 나성한인교회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6:30(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더문터문 47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승부 장로 17,27,37기 수료생세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문선교사 양성 -영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를 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25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삼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비르, 교회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2:22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 성경적코이노이, 민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구어인(2세)세를책임지며, 이민자정착을지원하며, 선교정령을 순종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

교회미션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주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교회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여 율통(통)하여 만민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4월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요성경공부 오후 8: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오후 7:45
오전 12:00(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 예배 오전 11: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제자훈련(수)오후 8:00
중보기도(목)오후 7:30
성령집회(금)오후 8:00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유래고 믿음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시리아에서 20여 교회 붕괴되고 100여 신도들 사망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중

시리아 내 20여 교회가 무너지거나 붕괴됐으며, 약 100여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디옥, 울 더 이스트,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의 그리스 가톨릭 정교회 대주교 그레고리 3세(the Patriarch Gregorios III)는 중동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아랍 국가 내에서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이 중동 지역의 최근 상황 중 기독교인들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리아의 최근 국면은 제한적인 지원 등의 이슈를 초월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많은 아들들이 납치됐으며, 이들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지

불해 왔다. 약 100여명의 우리 아들이 죽었으며, 약 1000여 기독교 단체가 공격을 받았다. 20여 교회가 파괴되거나 무너졌다. 주님을 믿는 자들과 신부들은 쫓겨났다. 신부들은 약 1년이 넘게 신도들과 만나거나 전례에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약 2십만여명의 시민들이 시리아를 떠나거나 난민이 됐지만, 이는 시리아인들이 처한 상황의 일면이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라함 대주교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신도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있다"며 시리아 안팎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준 레바논 정부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강해진 기자

아브디니 목사, "석방 요청 늘면서 고문 심해져" 고통 호소

미국의법과정의센터 "그를 잊지 말아 달라" ... 지속적 기도 요청

이렇게 미국인 사예드 아브디니(Saeed Abedini, 32) 목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석방을 위한 청원이 높아지면서 고문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 나흐메는 미국의법과정의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팠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도소 안은 잊혀지기 쉽다. 그가 잊혀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그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아브디니 목사를 만나고 돌아왔다.



사예드 아브디니 목사

미국에 있는 나흐메와 그의 두 자녀들을 대변하고 있는 ACLJ는 성명에서, 아브디니 목사가 1월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 가족들과 대화도 단절됐다고 밝혔다. 아브디니 목사는 지난 2012년 9월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구금돼 왔다. 앞서 그는 아내 나흐메와의 정기적인 통화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금지된 상태다. 나흐메는 "언제 다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혁명법원은 아브디니 목사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난 2000년 지하교회를 도왔으며,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그에게 8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란에 있는 아브디니 목사의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위한 노력들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나, 그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더 있다"고 전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아브디니 목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불공정한 구금을 규탄하고 그의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이 지난 주 아브디니 목사 사건과 관련해 묻자 "우리는 이 재판의 불공정함과 불투명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나는 미국 정부와 함께, 이란 정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헌부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이란 당국이 아브디니 목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를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대답했다.

ACLJ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가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의 석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대용 기자

아프리카 케냐 교회, 괴한 총격으로 목사 2명 사상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의 범행 잦은 지역

이아프리카 케냐에서 2명의 목사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7월 가리사 지역에 위치한 2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오폴도어선교회 동아프리카 사역팀은 지난 7일(현지시각) 동아프리카 오순절교회(the East Africa Pentecostal Church) 이브라힘 마쿠니(Ibrahim Makunyi) 목사와 아브디 웰리(Abdi Welli) 목사가 케냐 가리사(Garissa) 시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웰리 목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으며, 마쿠니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마쿠니 목사의 상태는 위험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쿠니 목사에 의해 전도되고 훈련받던 웰리 목사는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가리사는 케냐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인 알-샤바압(Al-Shabaab)은 그 지역 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폴도어선교회는

오폴도어선교회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미국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특별히 가리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22명의 기독교인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100여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불구가 됐다"고 전했다.

오폴도어선교회는 최근 "케냐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알-샤바압과 같은 이슬람 소수 그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향후 종교적인 분위기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오폴도어선교회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케냐의 총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폴도어선교회는 웰리 목사의 아내 헬렌과 3명의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아들을 잃은 마쿠니 목사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뭇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믿음 뉘야”

오바마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해 기독교적 메시지 역설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힐튼 워싱턴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 도중,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구원자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됐다. 미국 지도자들이 국가 정책과 나라의 올바른 방향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으나, 이같은 대화는 종종 사건 뒤에 묻히기도 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나는 백악관 집무실로 돌아가 CNN 뉴스를 켜다.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각에서 미 보건복지부(HHS)의 낙태기술 및 피임과 관련된 새로운 의료법안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말씀을 인용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뭇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중들에게 미국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경각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있었던 이·취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개의 다른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다.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 권리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그의 연설에서 조슈아 뒤보아를 언급했다. 뒤보아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종교 분야 책임자로 대통령을 도왔다.

작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보다 정치적 어조로 정책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건강보험법 개혁 및 부자 증세 등도 포함돼 있었다.

오바마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동성애 단체 비난

“동성애자 사형법 지지한 것과 다름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워싱턴 DC에 근거지를 둔 동성애 단체가 “전 세계 동성애자를 죽이는 일을 지지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로빈 맥기히와 킵 윌리엄스가 2010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 게이퀵(GetEQUAL)에 따르면, 3,500명이 참석한 2월 7일 행사는 ‘더 패밀리’로 알려진 보수주의 복음주의 단체 펠로우십과운데이션(Fellowship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았다.

게이퀵의 헤더 크롱크 전무이사는 “또 다른 1년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에 뿌리를 둔, 빵과 커피로 뒤덮인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며 “이는 그가 말한 ‘포괄’(inclusion)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게이퀵은 펠로우십과운데이션의 몇몇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유죄로 규정한 우간다의 악명 높은 반동성애 법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국제단체들과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 등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규탄했다.

크롱크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완전히 수용하는, 사회 정의에 뿌리를 둔 여러 종교단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바마 대통령이, ‘더 패밀리’가 전세계의 LGBT를 살해하는 일을 후원하도록 허락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이 신앙의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LGBT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펠로우십과운데이션은 우간다의 반동성애 법안에 대한 지지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 게이퀵은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퀴어 단체, 우리의 협력자들이 법적·사회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행동을 대대히 취할 수 있게 힘을 북돋우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라고 말한다.

2010년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성결혼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미국에서든, 혹은 극단적으로 최근 우간다에서 발의된 끔찍한 법에서든, 우리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에 분명히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이퀵은 우간다 법안에 대한 오바마의 이전 진술을 인정하나, 그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이 행사를 지지한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게이 레즈비언 연맹체(GLAAD (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의 로스 머레이 종교·신앙과 가치(Religion, Faith & Values) 감독은, “오바마의 기도회 참석은 생명과 자유를 염려하는 모두를 위한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의 동성애자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생명과 자유를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그들은 이 기도회를 후원하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부터 공격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의 대통령은 ‘크리스천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거나 지지할 수 없다’는 오해에 도전하는 살아 있는 본보기다. 조찬기도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미국인들에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렸다. 그 행동들은 그의 일생에 걸쳐 그 안에 스며든 성경적인 가치”라고 했다.

백악관 신앙행정실 책임자 두보아 목사 사임



조슈아 두보아 목사

백악관 신앙행정실 책임자였던 조슈아 두보아(Joshua Dubois) 목사가 지난 주말 공식 사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 DC의 힐튼 워싱턴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두보아 목사가 사임했음을 알리고 그에게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

두보아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겸손은

말보다 앞선다. 좋은 대통령과 동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보아 목사는 민주당의 신앙적 발전을 도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보건복지부(HHS) 건강보험 수정법안 등과 관련해 보수주의자들과 담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무능함을 지적받기도 한다.

테네시 네슈빌에서 자란 두보아 목사는 앞서 공화당의원 러시 D. 홀트(뉴저지) 의원을 도왔으며, 메사추세츠의 작은 오순절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일했다.

강혜진 기자

O.C. / 엘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배명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토) 오전 6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7시 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철야

로템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해, 믿음은 응답한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함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라클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6:00(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라클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의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 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영혼구원과 해방, 나눔을 이룩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활의 삶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염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침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박세록 대표**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설날 맞이 연장세일!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50봉/ea
+ tax

프로모션 A 2월15일까지

프로모션 B 2월15일까지

프로모션 C 2월15일까지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봉) **100봉**
or 오리지널8병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봉) **100봉**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봉) **100봉**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세일기간: 2월 28일까지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을 사랑합니다.- 보은사례 운동 안내

HQ구연산으로 모든 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HQ구연산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병을 구입하기에도 힘든신
우리들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께 매달 100봉을 한 병씩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에 동참해 주신다면 세상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닌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제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차대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약은 일제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와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외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고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용연구소 수료
응용화학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래리 크랩 | IVP |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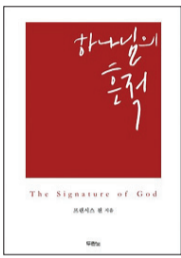
크랩의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40일 동안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66권의 성경 가운데 40권을 선별했다. 매일의 말씀과 짧은 묵상,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책을 통해 독자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흔적

프랜시스 찬 | 두란노 | 232쪽

책에서 저자 프랜시스 찬의 삶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프랜시스 찬은 “바쁜 삶을 떠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데 힘쓰며, 그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한다.



교회여 세상 속으로 흠어들어라

유승관 | 생명의말씀사 | 3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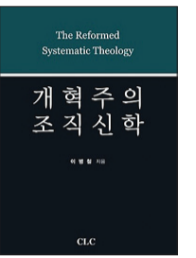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선교를 우선적인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론과 실천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자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여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이론과 실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병철 | CLC | 824쪽

개혁주의 조직신학과 교리사 등을 참고하여 편집했다. 성경대로의 개혁주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바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교리와 신조는 건물의 기초, 인체의 골격과 같다. 성경대로의 교리와 신조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몸인 단일 교회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VIEW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예수님의 초상화”

휘튼칼리지 필 라이큰 총장의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관한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글에는 아무래도 감동이 덜한 법이다. 바울이 쓴 ‘사랑장’,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인 고전 13장은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자주 회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익숙한 글이라도 ‘추억’을 덧입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했으며 현재 휘튼칼리지 총장인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생명의말씀사)>의 저자 필 라이큰(Phil G. Ryken)은, 바울이 하나님이나 분석해 놓은 사랑에 ‘예수님의 공생애 행적’들을 덧입히는 작업에 돌입했다. ‘사

랑장’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한 방법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의 관점으로 사랑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전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채울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와는 다른 의미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을, 저자는 ‘사랑을 안다고 믿었던 청년’이라 부른다. 그리고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아니 인정할 준비도 돼 있지 않겠지만, 우리도 이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사랑장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 자신의 방

법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랑 없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사랑장’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랑장을 친숙하게 느낀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사랑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주기도 남을 때만 준다. 섬길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섬긴다.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가 보장될 때만 사랑한다.”
‘사랑장’을 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는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말한 것처럼 1인칭 단수형을 사용했다. 이전



필 라이큰 | 생명의말씀사 | 272쪽

의 자신을 배설물 같이 여긴 바울이 었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많은 이들이 ‘사랑장’을 ‘결혼’과 연관짓지만, 말씀 속 사랑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것이 ‘죽음과 희생에 관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강조한다. “이 말씀이 지배하는 이미지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십자가다.” 그리고 ‘무엇이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믿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까지 회복시키시는 ‘한계 없는 믿음’을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미덕보다 귀하다. 사랑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절대 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도 사랑의 영속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사랑이시다. 사랑의 모든 속성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사랑장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을 쫓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친다.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하듯 우리는 사랑에서도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라!”

올리브나무교회 창립예배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올리브 나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래와 같이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참석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3년 2월 17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올리브나무 교회 대 예배당
300 Western Ave L.,A, CA 90020
(한인타운 웨스턴과 3가 코너)

Tel: 213-300-9762

축하 설교: 한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
총회장 황수원 목사

초청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 남가주 노회장류 당열 목사
올리브나무 교회 김창현 담임목사와 교인 일동

올리브나무 교회

300 Western Ave L.A, CA 90020
(한인타운 웨스턴과 3가 코너)
T.213-300-9762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현순호 목사

내 안에도 끝없는 갈등이 있는데 다른 개체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제 나 좋을 수 만은 없다. 어떨 땐 저 분이 부모가 댔나 의심도 간다. 반대로 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가? 하고 되물을 때도 있다. 부자간의 관계를 3가지로 분류해 봤다.

▷가시고기 형: 암컷이 많은 알을 풀어놓으면 그 후엔 수컷의 몫이다.

알을 옆에서 24시간 지킨다. 크나 작으나 어떤 고기가 옆에 오면 목숨걸고 달려들어 쫓아낸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 알이 작은 고기가 되어 헤엄쳐 나간다. 이 때 할 일을 다한 수놈은 지칠때로 지쳐 한쪽 구석에서 죽고, 물 위로 떠다니다 날아가던 새가 물고 달아난다. 이 같이 어떤 부모는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부모 나름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노년에 부모가 골병 들어 고생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기보다 되려 무시하고 이유없이 대들기까지 한다. 부모는 실망을 넘어 후회하기까지 한다.

▷거북이 형: 암놈은 따뜻한 모래를 깊숙이 파고 알을 수북히 쏟아놓고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덮고 바다로 들어간다. 몇 주간이 지나 따뜻한 온기를 지닌 새끼들이 밖으로 나온다. 이들은 무거운 모래를 헤치고

밖으로 나와 역시 쓸물을 따라 바다로 기어간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부모는 자녀들을 낳기만 하지 키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이를 큰 짐으로 생각해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심지어 헌 물건을 내다 버리듯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도 한다. 어려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어른이 돼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일생을 어렵게 살아간다.

▷독수리형: 높은 절벽의 나뭇가지 위에 동자를 들고 알을 낳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3주간을 품는다. 알에 금이 가면서 조금씩 벌어질 때는 부리로 꺾대기를 쪼아 새끼가 밖으로 나오게 도와준다. 그 후엔 연신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훈련기간이 시작된다. 어미는 새끼를 물고 높이 올라가 떨어뜨린다. 새끼는 죽지 않겠다고 날개를 퍼덕거리

지만 힘이 달려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 어미는 다시 새끼를 차고 올라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단련시켜 새끼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후 어미새는 동지 위에 깔려 있던 깃털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맨 밑에 있던 나뭇가지를 위로 끌어올린다. 가시에 찢려 새끼가 더는 있을 수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면 부리로 쪼아 밖으로 밀어내기까지 한다. 결국 새끼들은 그곳을 떠나 제 갈 길을 찾아간다.

많은 부모들이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훗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 너무 가혹하게 키웠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 양육법에 있어 각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상식은 있어야 한다. 즉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며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만

한 책임이 마땅히 부모에게 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해도 끌어안아야 한다. 한국서 대기업 간부로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도미한 한 지인이 있다. 그는 자식을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이 고생했다. 변화가에 큰 상점을 내고 이제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 뒤를 이어 상점을 맡아야 할 외아들이 도박에 미쳐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탕진하는 것이었다. 부모는 울며불며 타이르고 때로는 책벌도 가했지만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은 저축해둔 돈을 몽땅 가지고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병에 걸려 죽게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부모는 울면서 망나니 아들을 받아들였다. 그 눈물은 이제라도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들은 뒤늦게 부모의 깊은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다.

토요타 신화, 교회가 배워야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금의 개신교회가 더 부패했다고 한다. 더는 가망이 없다고 한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 중 한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터져 나오는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에 토요타의 회복처럼 교회의 회복 뿐 아니라 개신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갖고 싶은 종교의 첫 번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 교회도 '기초 체력'을 키우고 이 비판과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키워야 할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 필자는 '회개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회개'는 선편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목회자들도 쉽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처음하신 사역은 회개에 대한 가르치심이었는 데 말이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첫 번째로 회개를 요구하셨다. 그 다음 '말씀'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의 기초 체력은 '회개'를 통한 '말씀'으로의 '회귀'다. 이것이 야말로 초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한 본질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이며, 개혁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이어가는 것이다.

토요타가 보여준 신화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Sign)'일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되 살아났다. 아니 더 강한 '괴물'로 살아났다. 여섯 번에 걸친 위기, 리먼 쇼크, 대량 리콜, 엔고, 일본 대지진 등... 연타를 맞고도 전년 세계 판매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토요타의 힘은 강한 '기초 체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 탄탄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이다. 또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 예로 토요타 간부들이 삼성 인재개발원을 찾아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 정신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작금의 교회 모습은 안과 밖, 모두 더 추락할 곳이 없을 지경의 나락에 빠져있다. 교회 내 자성의 소리는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고 세상이 되려 교회를 걱정한다. 아니 어떤 이들은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의 부패 앞에 개혁을 부르짖으며 일어났던 때보다 지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카카오톡에 알듯 모를듯 한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다. 베로니카? 누군가 했더니 대학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 J였다. 이름으로 보아서도 알겠지만 여자인데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여자 친구는 아니고 진짜 친구이다. 흔히 남녀 간에 우정은 어렵다고 하기도 하지만 베로니카의 경우는 좀 다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학시절부터 피차간에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로니카는 대학시절부터 활발한 친구였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와도 잘 사귀는 마당밭이었다. 대학시절 유난히 어울려 다녔던 몇몇 친구가 있었는데 베로니카는 그 중에서도 남자를 제치고 대장 노릇을 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미국으로 떠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국 와서 신학을 하고 교회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밖의 옛 친구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여성으로부터 "혹시 엄 목사님이시냐?"는 전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가 걸려왔다. 까맣게 잊고 있던 베로니카였다. 미국으로 온 후 공부나 사역이니 해서 한국의 친구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베로니카를 비롯한 한국의 옛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던 중 어디선가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동부의 친구 남편인 목사님께 수소문한 끝에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제학 박사쯤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한다 해서 다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고 했다. 놀랍고 미안했다.

그 후 베로니카는 톱툰이 전화도 주고 옛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갑기는 했지만 몸과 마음을 목회에 빼앗기고 있는 처지에 베로니카나 옛 친구들과 살가운 옛정을 나누기는 어려웠고 베로니카의 따뜻한 우정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베로니카에게 연락이 왔다. LA에 들릴 일이 있는데 온 김에 꼭 우리 아이들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가 베로니카 아줌마를 만났다. 아이들은 이 아줌마가 아빠의 대학교 때 동창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가우뚱 하더니 곧 허물 없이 다가오는 아줌마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베로니카는 저녁 한 끼 먹고 헤어지는 아이들 손에 옛 할머니처럼 꼬깃꼬깃 용돈을 쥐어주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난 또 베로니카를 잊어버렸다. 내가 답장을 주든 말든 늘 이런 저런 소식을 전해주던 베로니카도 한동안

뜸한 느낌이였다. 목회 한답시고 내가 너무 무심하니까 이 친구도 그럴 것 같았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불쑥 연락이 왔다. 한국에 불일이 있어서 다녀오느라 좀 오래 걸렸다면 다시 그간 쌓였던 친구들의 소식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베로니카 덕에 오래 전의 친구들과 우정의 끈은 이어져 오고 있다. 옛제제도 베로니카는 연말에 카드 한 장 보내지 않은 내게 신년인사와 더불어 막둥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는 등 궁금한 일을 물어왔다. 모처럼 인심 쓰듯 아이의 사진을 찾아 하나 보내주었더니 너무 예쁘다며 즐거워했다.

베로니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거나 특별한 사연이나 애뜻한 감정도 없는 삼십 사오년 전의 대학친구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 아이들까지 챙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베로니카의 이런 사랑과 관심은 나쁜 아니라 자기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동일할 것이 틀림없다. 베로니카의 인간에 대한 그런 진실된 관심과 사랑이 참으로 부러웠다.

인간에 대한 이런 관심과 사랑은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내 마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할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에게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신가? 사람에게 대한 관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선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내 옛 친구 베로니카를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제단 이사장 유당열 목사

선교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 광영교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일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가족 품으로 들어올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들어올 때 기다리던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달려가시는 아버지입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줍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라”(눅15:32)

선교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속한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선교는 구원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다리를 잇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과 천국에 징검다리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선교입니다.

이제 곧 선교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선교주일에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로 한 달에 얼마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했다면 당신의 물질과 손과 발을 피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저들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오직 예수 그리스도!!

티티새 논쟁



김세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고 말했습니다. “망할 놈의 할망구, 주둥이만 살아서. 그래 어디 늙은이에게 죽어봐라” 그리고는 아내를 두들겨 패었습니다.

일 년 후, 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무렵, 아내가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벌써 일 년이 지났군요! 당신이 암티티새들을 잡아와서는 솃티티새라고 우기면서 나를 개 패듯이 때렸지요.”

농부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무식한 것은 변함이 없군요!” 농부는 다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가르쳐주지!” 다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두 부부는 잊을만 하면 “티티새 논쟁”을 벌이다가 남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불필요한 티티새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원수처럼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가리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뿐인 것을,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다가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티티새 신드롬”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입니다. 자존심, 욕심 그리고 이해타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티

티새 논쟁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교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팽소 의기소침해서 뒷전에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사명의식을 느끼고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복음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바울이 싫어서 멀찌감치 뒷집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과 공명외식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 못마땅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앞뎠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분노하기보다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립보서 1:18) 무엇이 인생의 본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티티새 논쟁은 언제든지 멈추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안혜권 목사
열방교회

입니다. 악한 일에 사용된 시간은 버린 것입니다. 범죄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남을 해치는 일,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쓰인 시간은 모두 버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낭비하는 시간도 버린 시간이 됩니다.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거나 멍청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금가루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쭉쭉 새어나오고 있는 것과도 같이 값비싼 것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대한 대략의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그날 깨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을 해치우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 책 읽는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사귀를 나누는 시간 등을 잘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에베소서 5:16-17)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머리맡에 어김없이 8만6천4백원이 놓여 있어서 하루 동안에 마음대로 쓰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돈은 이상하게도 쓰이면 하루가 지나면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그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항상 동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하루가 24시간이요, 그것은 1천 4백 40분이며 초로 환산하면 8만6천4백 초가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매일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역사상 시간을 가장 멋지게 쓴 사람은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그것을 허비하거나 악한 일에 쓴 사람은 우리 사회에 오점을 남기기도 한 것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Life



아하!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인생의 마지막 말

“당신은 만약 지금 곧 죽는다면 마지막 말로 무슨 말을 할 거야?”

“저요? 음..... 당신 먼저 말해봐요!”

“나? 음..... 내가 물어봤으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음..... 글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봐?”

“그게 무슨 말이예요? 사랑하지요!”

“그러면 마지막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만한 일이 되어버렸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다. 그때 미국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날 출근으로 한창 붐비는 아침 8시 48분쯤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가운데 북쪽 건물 상층부에 보스턴발 LA행 보잉 767기가 돌진해 충돌했다.

이어 18분 후에는 남쪽 건물에도 AA(아메리칸항공)와 UA(유나이티드항공) 항공기가 날아와 충돌하면서 폭발음이 발생했다. 세계무역센터는 무려 5만여 명이 근무하며 하루에 15만여 명이 출입하는 빌딩이다.

사건이 나자 쌍둥이 빌딩 곳곳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수천 명이 한꺼번에 건물에서 빠져나와

현장은 일순간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이 사고가 발생한지 40여분 후에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AA항공기가 추락하면서 2차 테러공격이 있었다. 또한 UA항공기가 승객 38명, 승무원 7명을 태우고 뉴욕 외곽 뉴욕 국제공항을 출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추락했다.

이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공무원들, 그리고 무너지는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가장 많은 언어는 “사랑해!”라는 말이었으며, 어떤 희생자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겨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각 언론사에서는 후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으로부터 사고자들의 마지막 말을 보도한 바가 있었다. 스투어트 T 멜처(32세) 씨는 부인에게 한 전화에서 “여보! 사랑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안녕!”이라고 얘기했다. <보스턴 헤럴드>는 빌딩에 충돌한 여객기에 탄 승객 브라이언 스위니(38세) 씨가 부인 줄리에게 자동응답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메시지를 소개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되면... 여보! 인생을 멋지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다시 봐!”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그에 좀 잘 돌봐 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것이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파스칼은 “인간은 나면 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태어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시한이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우리는 죽음에 항거할 수 없고 연기하거나 도피할 수도 없으며, 죽음의 시기조차 알 수 없는 자들이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인생의 마지막 말처럼 “여보, 사랑해!”를 말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전요섭 목사, 황미선 사모(한국기독교정신상담연구소)

강선영 칼럼

살인적 분노

살다보면 막힌 마음들을 만나며, 내 마음의 막힌 부분도 들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 새벽에 내 깊은 무의식의 한자락이 펼쳐지면서 미해결된 이슈가 살짝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살인적 분노’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래 전 나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곳의 대표는 겉으로는 온화한 사람이었으나 숨어있는 분노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오해를 한 그는 나를 불러 앉혀놓고 살인적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분노의 비수와 폭탄을 날렸고, 나는 그날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세하얏게 질린 채 그곳을 나서는 순간부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했습니다. 운전 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거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몇 년에 걸친 치유를 통해 그 상처와 고통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내 안에는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읊기서 36장 6절의 말씀인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며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인권을 살려 주시며 내대신 의로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권을 달라는 기도를 씬 없이 몇 년 간 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토록이나 살인적 분노를 퍼부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등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살인적 분노’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의 저편에 새겨져 또 다른 분노를 만날 때마다 들추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동반하여 일시적으로 우울 무드가 영혼을 물들이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나의 치유를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살인적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분노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채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되어 생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는 느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십대의 남성이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가 많은 분이였어요. 특히하면 심하게 화를 냈죠. 한번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냈고 어린 저와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한번은 엄마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흘렀는데도 화를 계속 내셨죠. 정말 무서웠어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분노를 자신도 모르게 표출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의 상처에서부터 온 것이고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고 만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분노가 너무 오래 되고 성격처럼 형성되고 나면,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성격장애자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인적 분노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살인적 분노를 행하는 가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 상처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며, 또 반드시 행복해야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이스라엘 탐방

막달라 회당(Magdala Synagogue)

지난 2009년 9월 11일 이스라엘의 일간 신문들은, 1세기 당시의 고대 회당이 막달라에서 발굴된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유대인 회당은 예수님과 바울 및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중요한 장소였다. 이번에 발견된 막달라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1세기 당시의 첫 회당이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다양하다. 갈릴리 호숫가, 산 위, 각 성과 각 촌, 길거리, 때로는 개인의 집, 성전 뜰, 특히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복음 증거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으레 회당을 찾으셨고, 규례를 따라 성경을 읽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후에 회당은 전도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다(행 13:14, 14:1,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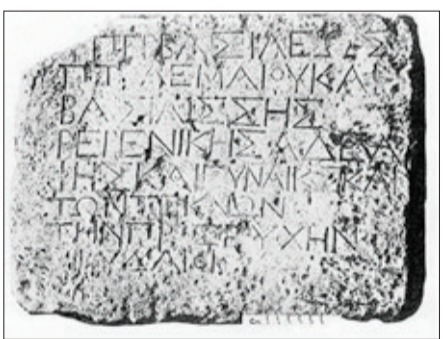
복음서에 회당이란 단어는 모두 34회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회당은 모두 10군데이다(막 1:21, 39, 3:1, 6:1, 마 9:35, 눅 4:15, 16, 13:10, 요 6:57, 18:19). 그러나 갈릴리 마을에서 회당이 복음서에 언급된 곳은 나사렛과 가버나움 두 곳 뿐이다. 다만 ‘온 갈릴리... 여러 회당’이란 표현으로 갈릴리의 회당이 있는 마을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은 역사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사진 왼쪽부터) 갈라 회당 전경, 맛사다 회당 전경, 헤로디움 회당 전경

회당이란 용어가 성경 외의 문헌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것은, 이집트 카이로의 남쪽 약 100km 떨어진 파이움(Fayyum)의 스케디아(Schedia)에서 발견된 주전 3세기의 그리스 비문(上)이다. 이 비문을 통하여 유대인 회당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회당 유적은 주전 2-1세기의 것으로,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해 연안 델로스(Delos)섬에서 발견된 회당이다. 델로스 회당은 주후 3세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고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에 메노라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아테네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13-1914년 프랑스 고고학자인 레이몬드 베일(Raymond Weill)은 다윗 성을 발굴하면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한 비문(右)을 발견하였다. 테오도투스(Theodotus)는 제사장 아들로, 토라를 읽고 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회당을 건축하였다고 비문



이집트 파이움의 스케디아에서 발견된 회당이란 단어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비문

에 기록되었다. 테오도투스 비문은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에 속한다.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 역사지리학과 교수

WIN HYUNDAI at El Monte

VERACRUZ Limited 2012 Lease \$259 per month plus tax	SANTA FE SE AWD 2012 Lease \$259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Lease \$89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Lease \$79 per month plus tax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2월20일까지입니다.

Assurance

Tel.888.409.3002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COVER STORY

성경의 땅을 ‘입체 모형’으로... “사실적 이해에 도움 될 것”

성경문화원 이주섭 목사, 컴퓨터 정밀 작업으로 세계 최초 제작



성경문화원 이주섭 목사는 최근 성경의 땅을 입체적으로 제작한 모형지도도를 완성했다. 이는 성경을 이미지화할 때 느끼는 한계를 극복한 첫 시도다.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로 정교하게 제작된,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의 입체적인 모형이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의 역사 지리학 교수 이주섭 목사는 20년 전부터 ‘성경의 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 제작’을 꿈꿔왔고, 그 꿈을 드디어 이뤘다.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가로 27cm, 세로 55cm의 현대 이스라엘 지도 모형이 제작된 적은 있지만, 현대 이스라엘 지도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주요 도시, 고대의 주요 도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들이 정확하게 표기된 데다가 성경의 땅이 입체적으로 제작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주섭 목사가 제작한 모형은 가로 55.25cm, 세로 118.11cm, 성경의 땅을 1/40만 크기로 축소할 것이다. 그동안 성경의 땅을 입체적으로 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손으로 모형 제작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는 이스라엘 지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작은 골짜기, 좁은 길, 낮은 언덕, 좁은 평야를 손으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모형은 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부분

까지 컴퓨터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대중 만든 모형으로는 성경의 배경을 대중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교하게 제작된 모형으로는 성경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모형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 예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가나 마을과 나사렛으로 연결된 고대 도로는 막달라 평야, 아르벨 골짜기, 또는 락갓을 우회하여 베네토와 골짜기를 따라 서로 연결되었다(요 4:46-54). 여기에서 막달라 평야, 아르벨 골짜기 또는 락갓을 우회하는 골짜기의 고대 도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통로였지만, 아주 작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모형에서 사람의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주섭 목사가 컴퓨터로 제작한 모형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이 입체적인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성경 교사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 벧엘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

옥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성경의 거의 모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의 땅 모형도는 왜 중요한가? 이주섭 목사는 1989년 여름, 복음서를 읽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던 갈릴리 호수”가 무척 궁금해졌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배경을 설명한 여러 책들을 참고하였더니,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골란고원, 서쪽은 포리아산과 아르벨산, 북쪽은 현무암 지대의 낮은 언덕이 있고, 남쪽은 폭이 좁은 요단평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적 설명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생생한 현장을 머리로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처럼, 많은 설명보다는 성경의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그는, 1989년 12월 성경의 땅을 3개월간 탐방하기로 계획하고 생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았다. 1989년 12월,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거쳐 예루살렘에 여장을 풀 이주섭 목사는, 다음날 차를 렌트하여 가장 먼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로 향했다. 유대 광야를 지나 요단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약 3시간을 달린 후에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동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갈릴리 호수를 눈으로 처음 보았을 때 성경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글자로만 성경을 읽어 그 배경을 막연하게 상상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본 뒤에는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만 보다가 실체를 본 느낌이었고, 상상만 하다가 사실을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때의 감동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섭 목사가 모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사실적인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난 이주섭 목사는, 2003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이 이

라크를 공격하기 직전까지 10년 넘게 유일한 관심이 성경의 배경을 실제 현장에서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을,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과에서는 Special Student로 고대도를 연구한 것이다. 그는 4X4 지프를 구입하여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역사적인 현장들을 탐방해왔다. 그는 성경을 실제 현장에서 발로 연구한,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 진정한 ‘성경 역사 지리학자’이다. 성경의 거의 모든 현장들을 실제 현장에서 연구한 이주섭 목사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교실은 성경이 기록된 바로 그 현장”이라고 말한다.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마하넬단에서 태어난 삼손이 댁에 살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한 사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의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이용했던 길,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용했던 고대의 길을 따라가며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이야기를 실로암 연못 바로 그곳에서 읽는다면, 받는 그 감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로암 연못은 2004년, 이스라엘 고고학자인 로니 리흐와 엘리 슈크론에 의해 2천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땅을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다 성경의 땅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주섭 목사가 제작한 성경의 땅 모형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사실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주섭 목사는 20년에 걸쳐 모형 제작에 대한 꿈을 가져왔고, 그 구체적인 꿈을 완성한 것이다. 모형 제작 과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경의 땅을 입

체적으로 제작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이스라엘 지형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지도, 그래픽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프린트가 가능한 정확한 지도,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여 2차원의 평면 지도를 3차원의 입체적인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전문 모형 작가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주섭 목사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세 번 바꾸어가며 모형을 완성했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함께 이주섭 목사는 국경선, 크고 작은 도로, 산과 골짜기, 도시와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컴퓨터 지도에 모두 입력했다. 작은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 두 개의 돋보기를 사용했고, 길게 작업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꼬박 18시간을 작업한 적도 있었다. 모형 제작에 착수한 지 꼬박 15개월 만에 입체적인 성경 모형이 완성되었다. 그는 모형을 제작하는 1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특히 미국,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솔한 나라들에서 모형 작가를 찾아 나섰다가 31년간 모형을 제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고 있다. 2012년 12월 초, 완성된 모형을 갖고 아틀란타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어느 성경 교사와 만난 적이 있다. 모형을 들고 매장으로 들어서는데, 여러 미국인들이 모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모형 주위로 모이는데, 급기야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도 모형을 보기 위해 왔다. 그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모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중에 한 유대인 청년도 있었다. 그는 한번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입체적인 모형을 통해 자기 나라를 대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그는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 모형을 소개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작된 모형은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알게 해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 <도움말: 이주섭 목사>

Advertisement for Gold Finger Tailor. Features a man in a suit, the text 'Gold Finger', and promotional offers like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and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Advertisement for Master Tailor Byung Ho Kim (Kyung Sik). Includes a photo of the tailor, a list of awards and membership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노인 시민아파트 신청대행

213-365-6622 (67+사무스베일리앤드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안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0 (특별 할인) - 양쪽 앞선 모델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타사)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한인 2세 검사, 미국 법조계를 매료시키다

[인터뷰] 시애틀 킹카운티 검찰청 시니어 검사 스티븐 김

시애틀 한인 2세 검사가 1년 동안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를 본국에 소개하고, 시애틀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자 시애틀 타임즈, 키5 TV 등 미국 언론사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정의의 향한 투지와 열정이 미국인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애틀 킹 카운티 검찰청이 자랑하는 에이스 검사, 시애틀 강력 범죄 재판을 전담하며 100여건의 재판을 승소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냉철한 판단력과 포기를 모르는 투지의 남자 등이 스티븐 김(38) 검사에게 붙는 수식어다.

강력 범죄 전담 검사로는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미소를 지닌 김 검사를 시애틀의 푸른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라운지에서 만났다.

김 검사는 74년 미국으로 이민 온 김정철 장로와 신영은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워싱턴대학(UW) 정치학과에 진학한 성실한 청년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살림에 자취나 기속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같은 대학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에도 부모가 하는 식당의 카운터에서 법전을 펼쳐 놓고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스포츠다섯이란 젊은 나이에 시애틀 킹 카운티 검사가 됐고, 지금은 12년 경력을 가진 시애틀 검찰청의 베테랑 검사다.

또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해외법조인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미국을 대표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할 정도로 인격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엔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다.

무엇보다 그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특별하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람들의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하는 일문일답

-매우 운화한 얼굴이다. 강력계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나?

“**(웃음)**검사라는 직업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50명에서 100명 가량 되는 배심원들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읽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많은 검사들이 배심 재판 1년을 하면 다음 해에는 쉬고 싶어 한다. 정신 질환을 앓게 된 검사도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직업이다. 논리적 해답과 법적 근거를 찾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킹 카운티 검찰청을 소개해 달라

“킹 카운티에는 검사가 250명 가량

된다. 여러 분야의 팀이 있지만 내가 소속된 배심 재판팀은 25명이다. 10% 가량 되는 검사들이 매일 배심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재판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데 비결이 있나?

“대개 재판 과정 중에 배심원 12명 이상을 생각한다. 백인들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 가운데서 보편성을 찾고, 논리적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일수록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재밌게 진행한다. 많은 검사들이 배심 재판을 힘들어하는데 12년 동안 끊임없이 경력을 쌓아온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전통적으로 백인이 자리잡은 법조계라 아시안 검사에 대한 편견 있지 않나?

“한국 사람으로서 배심원들 앞에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인들은 아시안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한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만 잘한다'는 웃지 못할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백인 판사와, 백인 배심원, 백인 청년인 피의자 그리고 동양인 검사. 이런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 그럼 검사의 의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백인 청년을 봐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범행 동기가 과거 이력을 참고해서 범죄자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특정 인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 백인들의 심리를 적절히 파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아시안도 검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들의 편견을 깨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내가 검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다.”

-검사 일을 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하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실수한다면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두 번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럼에도 행동을 고치지 못하면 보호해야 한다. 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권과 정의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와 사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한다. 비결이 있나?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만 사용했다. 1970-80년대 이민 1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 모두 영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이 달랐다. 부모님께서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해도 집에서만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방학이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모두 외우고 받아쓰는 훈련을 자주 했다.”

-성장하면서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얻는 특혜도 있었나?

“사실 성장하면서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받는 특혜는 많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한국어를 공부했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한자까지 공부했다.

그런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곳은 집이 전부였다. 검사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가끔 피의자가 한국 사람이면,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전부였다.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용할 곳이 많지 않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한국어를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한국 법무연수원에서 미국의 사법제도와 배심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의 사법시스템 개혁에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 법무원에서 원하던 사람은 배심 재판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고 한국말을 잘 하는 검사였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미국에서 내가 유일했다. 한국 법무부를 위해 일했던 한 해 동안 '나는 볼 수 없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나?

“강의를 가장 많이 했다. 한국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로스쿨을 방문해 강의했다. 또 법무 연수원 신임



시애틀 킹 카운티 스티븐 김 검사

검사, 부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고, 수원에서는 교수, 검사장들과 법무부 원장에게도 강의를 했다.

또 미국의 배심제도를 소개하는 책을 영문과 한국어로 제작했다. 미국의 배심제도가 영어와 한국어로 정확히 출간된 적은 대한민국 법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

-바쁘고 힘든 검사 생활에서 나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올해 100세가 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만날 때 마다 '항상 겸손하고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다. 할아버지 다섯 자녀들은 내 아버지를 포함해 모두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다. 사촌들도 모두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시애틀 형제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큰 힘을 얻는다.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참 따뜻하고 솔직한 분이더라.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

이 된다.”

-한인 이민 2세로서 훌륭히 성장했다. 앞으로 이민 3세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나?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많이 정착했다. 그런데 자녀들마저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여유로움이 자녀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족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 혼자 잘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모든 강력범죄 배심재판을 경험해 왔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판사도 나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정지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우선 지금 주어진 검사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사이메리카 선정]
“4년 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미국 무제한 통화

비싼 집전화는 가라!
아이토크비비가 나가신다!

무계약 + 4개월 무료

\$9.99/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계약+4개월 무료* 프로모션은 2013년 2월 28일 로 종료됩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www.Korea.iTalkBB.com 213.559.7557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환불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 최대 4개월 무료: 신규 가입자에 한해 매 5개월 사용시마다 다음달 1개월 무료, 총 4회에 걸쳐 적용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단, 1년 전후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요금(도포인)을 받으실 때, 무료 평가서비스 대기요약이 포함된 개별요금 상세내역을 제공, 유선 및 무선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에 부가비용(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이 적용될 수 있으며, 20.99달러(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변경하시는 경우 유선(956.99)과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필리핀, 태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지역은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 관련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ST)

LET'S START @ SUPER STORE

| 특 | 엔 | 테 | 힐 | 스 | 힐 | 대 |

2013

WWW.PHHYUNDAI.COM

2013 SONATA GLS



48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MSRP \$22,175
 PH HYUNDAI/DI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92
 +TAX (STK. 5898651)

2013 EQUUS Signature



48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MSRP \$60,150
 PH HYUNDAI/DI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559
 +TAX (STK. 0665421)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MSRP \$19,015 PH HYUNDAI/DI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55
 +TAX (STK. 248683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브라이언 리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빅터 최 626.482.0681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212-6431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